

조선시대 무과시험이 양반의 출세에 끼친 영향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Mu'gwa, 武科) and the Success of the *Yangban*(兩班) class in the Choson Korea

Chung, Hae-Eun(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ntents>

1. 문제 제기 : 무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2. 누가 무과에 급제했는가?
3. 어느 양반의 무과 합격 과정
4. 무과와 출세의 길
5. 무과가 양반의 출세에 끼친 영향

1. 문제 제기 : 무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

1960~1970 년대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과거 제도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과거제도란 공정과 개방을 표방한 관료 선발 시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소수의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차별적인 시스템과 폐쇄성이 상존해있는 시험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한국에서 무신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인 무과(武科)는 고려 예종 및 공양왕 대에 시행된 적이 있다가 조선시대에 정착되었다. 1402 년(태종 2) 처음 실시된 무과는 1894 년 과거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총 800 회가 실시되었다. 급제자만 약 11 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에 문과(文科) 급제자는 총 1 만 5 천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무과 급제자가 조선시대 전체 문과급제자보다 약 8 배나 많다.

이 때문에 오늘날 조선시대 무과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 중 전자의 시각인 개방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다. 이 시각은 80 년대 일기 시작한 조선후기 신분변동론의 연구에 힘입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논지의 핵심은 문신들이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비엘리트들에게 기존 체제를 흔들지 않은 범위에서 기득권을 일부 떼어주기 위해 무과를 개방했다는 것이다. 곧 무과를 새로 성장하는 계층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ladder of success 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 논지는 조선후기 사회 변동의 계기를 입증하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개방성과 함께 현재 조선시대 무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더 형성되었다. 첫째, 무과가 양반 사족(士族)으로부터 천시되었다는 견해다. 문치주의를 지향한 조선에서 무과의 위상은 문과(文科)에 비해 낮았다. 그런데다가 무과가 비상시 군사 모집을 위한 수단이나 전공에 대한 보상책 또는 비엘리트들을 위로하는 시험으로 활용되자, 사족들이 무과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엄밀히 따져 보면 무과의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다. 조선이 문치주의 사회였던 만큼 사회의 중추인 문신을 등용하는 문과는 비교적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과거시험의 순수성을 유지했으나, 무과는 변칙으로 운용되면서 양반 사족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무과가 문과에 실패한 사람들의 차선책이었다는 견해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연구자들은 족보에서 가계마다 문과 급제 계열과 무과 급제 계열이 나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계에 따라 문과나 무과의 합격 경향이 나타나는 현상을 토대로 하여 유학경전을 연구하고 연마하는 데에 소질이 없어 문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무과에 응시했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주장들은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무과급제자의 출신 성분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과의 개방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는 점, 무과급제자가 과거에 합격한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 신분 변동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적지 않은 추정을 하고 있는 점, 조선시대 내내 양반 사족들에게 무과는 유용한 관직 통로였다는 점, 과거시험의 합격을 개인의 우수한 역량의 결과로만 받아들이는 점, 관리를 등용할 때에 여전히 혈통을 중시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현재까지 통설로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과의 폐단과 문란, 변칙성을 강조하다보니 무과에 대한 이해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조선시대 무과에 대해 완전한 그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설과 다른 관점에서 무과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무과를 무과 응시자나 무과 급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작업이다. 무과응시자 및 무과 급제자 입장에서 무과 합격이란 양반 관료의 모집단으로 진입하는 길로 여겼다는 점이다. 더구나 조선후기에 관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과는 여전히 양반이 출세하는 것을 돕는 순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무과의 본래 기능인 관직진출로라는 점을 도외시한 채 무과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일이다. 이 발표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양반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서 무과시험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무과가 양반의 출세와 양반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누가 무과에 급제했는가?

조선시대에 양반이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뜻한다. 이 가운데 유학(儒學)을 공부하고 연마한 문신이 국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였다. 그래서 무반은 관료의 절반을 대표하지만 문신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고 사회적 평가도 낮게 인식되었다. 이를 문치주의(文治主義)라 한다. 문치주의를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개념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치주의 사회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무과에 급제했을까? 발표자는 박사학위논문(『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2002년)에서 현전하는 무과방목(武科榜目)을 토대로 광해~고종 연간에 무과에 합격한 16,643 명을 분석한 적이 있다. 광해~고종 연간까지 추산한 무과급제자 119,023 명 중 14%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19세기 후반을 제외하고는 시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에 대해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무과방목에는 무과급제자의 급제 당시의 직역(職役), 본관(本貫), 거주지, 그리고 급제자 아버지의 이름과 직역, 형제관계, 부모의 생존여부 등이 올라 있다. 무과방목에 기재된 단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기재 사항을 한가지씩 단선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서로 다각도로 연결하여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의 전산 입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현존하는 조선후기 무과방목에 수록된 16,643 명의 기재사항들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화된 무과방목을 활용하여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누가 무과에 급제했는지를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무과에 급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과방목의 기재 사항 중에서 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역이란 과거급제자가 과거시험에 합격할 당시 갖고 있던 신역이며, '급제하기 이전의 이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전력(前歷)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여기서 소개할 무과급제자들은 직역 무기재(無記載) 37 명, 직역 미상(未詳) 31 명을 제외하고 총 16,575 명이다.

조선후기 무과방목에 기재된 급제자 직역의 종류는 총 252 종이다. 종류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나타내기 쉽지 않으므로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관료군(官僚群), 군직군(軍職群), 한량(閑良), 기타직역(其他職役)으로 나누었다. 관료군은 품계 또는 관직 소유자를 묶었다. 군직군은 중앙과 지방의 군영 및 감영·병영·수영에 소속되어 군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관직이나 품계를

소유하지 않은 장교 및 금군, 그리고 보인을 포함한 일반 군졸을 묶었다. 한량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의 대명사로 지칭될 만큼 단일 전력 중 비중이 가장 높아 따로 분류하였다. 기타직역은 관료군, 군직, 군역군, 한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 소유자다. 이 기준에 따라 급제자의 전력 252 종을 분류하면 관료군 89 종(품계 38 종/관직 51 종), 군직군 138 종(군직 47 종/군역 91 종), 기타직역 24 종, 그리고 한량이다.

직역 시기	한량	군직군		관료군		기타 직역	합계
		군직	군역	관직	품계		
합계	5,650 (34.1)	1,843 (11.1)	3,685 (22.2)	2,255 (13.6)	1,733 (10.5)	1,409 (8.5)	16,575 (100.0)

<표 1>은 17~19 세기 무과급제자 직역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한 내용이다. 이 표에서 이 발표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과급제자 가운데 한량(3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후기에 한량이란 기본적으로 양반으로서 한유하면서 무(武)를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유교 경전을 연마하고 공부하는 유학(幼學)들도 무과에 응시할 때에는 직역을 ‘한량’으로 기록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무과방목에 올랐다. 따라서 한량은 중인 이하의 사람들도 사용한 직역이나,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양반으로 자처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관직소유자가 13.6%(2,255 명), 품계소유자가 10.5%(1,733 명)로서 관료군이 총 24.1%를 기록하여 양반 관료 및 관료 모집단의 참여가 의외로 활발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관료군을 다시 관직 소유자와 품계 소유자로 나누었고, 품계, 관직 안에서 다시 동반과 서반으로 구분하였다.

직역 시기	관 직			품 계		합계
	동반직	서반직	미상	동반관계	서반관계	
합계	107 (2.7)	2137 (53.6)	11 (0.3)	987 (24.7)	746 (18.7)	3,988 (100.0)

<표 2>에서 보듯이 관료군 3,988 명 가운데 관직소유자가 53.9%(2,255 명)이며 품계소유자가 46.1%(1,733 명)이어서 관직을 소유한 사람들의 무과 급제가 더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직 소유자는 서반직 소유자가 53.6%(2137 명), 동반직 소유자가 2.7%(107)를 차지했다. 서반직 소유자가 동반직 소유자에 비해 무려 20 배 정도나 높았다. 이와 달리 품계 소유자의 경우 동반 관계 소유자와 서반 관계 소유자가 각각 24.7%(987 명), 18.7%(746 명)로 나타나 동반 관계를 소유한 사람들의 합격 비중이 더 높았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방목에 나타난 직역을 근거로 할 때에 무과 급제자 중에는 양반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관료군의 비중만 24.1%이며, 양반이 다수 포함된 한량의 비중도 34.1%나 된다. 따라서 무과급제자가 비엘리트였다거나 양인 이하의 사람들이 주로 합격했다는 통설은 타당하지 않다. 무과급제자 중에는 양반은 물론 관료군들도 합격하고 있었다.

3. 어느 양반의 무과 합격 과정

조선시대 무과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고시였다. 그래서 무과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합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체크할 사항이 많았다. 먼저 응시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시험 예정일이다.

조선시대에 무과에는 식년시와 각종 별시가 시행되었다. 식년시는 3 년마다 치르는 정기 시험이다. 시험 절차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로 구성되었다. 각종 별시는 국왕 즉위, 가례(嘉禮), 왕세자 탄생, 환후 회복 등 왕실이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 시험이다. 대표적으로 증광시, 별시, 정시 등이 있다. 시험 절차는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단시제(單試制)나, 초시·전시로 구성되었다. 예외적으로 증광시만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복시가 있었다.

응시자 입장에서 식년시는 정기시험이므로 미리 예상할 수 있다. 증광시도 국왕이 새로 즉위한 해에 실시하므로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각종 별시다. 별시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험 날짜를 고지하므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관료의 자제나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리했다.

다음으로 응시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시험과목이다. 무과의 시험 과목은 실기와 필기로 구성되었다. 실기는 각종 활쏘기와 격구로 구성되었고 조선후기에는 격구가 빠지는 대신에 조총이 추가되었다. 필기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중에서 복시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므로 식년시와 증광시에 필기 과목이 들어간다. 필기와 실기 두 가지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실기시험이었다.

식년시를 기준으로 실기 과목을 꼽아보면 목전, 철전, 편전,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가 있다. 여섯 과목 중 목전, 철전, 편전, 기사 네 과목이 활쏘기다. 임진왜란 이후로 실기 과목이 목전, 철전, 편전, 기추(騎芻), 관혁, 기창, 유엽전, 조총, 편추(鞭芻)로 바뀌었다. 임진왜란에 대한 뼈아픈 자각으로 조총이 포함되었으나, 관혁과 유엽전이 신설되는 등 여전히 활쏘기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조선시대에 무신이 되려면 활쏘기 기량이 필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조선시대 무과 응시자가 무과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합격은 개인의 사안이므로 합격하기까지의 여정은 한 가지로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발표에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려는 목적은 무과의 합격 여부에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쳤음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발표자가 소개하려는 사례는 12 년에 걸쳐 어렵사리 무과에 합격한 경상도 양반이다. 18 세기 후반에 경상도 선산에 노상추(盧尙樞, 1746~1829)라는 사람이 있었다. 노상추는 십칠 세부터 여든넷의 나이로 죽기 며칠 전까지 일기를 썼다. 68 년의 세월동안 자그마치 52 책을 남겼으니 기록의 달인이라 할 만하다.

안강 노씨에 속한 노상추의 집안은 17 세기만 하더라도 영남 남인의 가풍을 지닌 사족 가문이었다. 그러나 노상추의 6 대조인 노경필 이후로 눈에 띄만한 벼슬을 하거나 생원진사시나 문과에서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점차 집안이 기울자 조부 노계정은 글공부를 하다가 무과로 전향해 병마절도사까지 올랐다. 그러나 아버지대에서 벼슬이 또 끊기면서 입신양명의 과업은 노상추의 몫이 되었다.

노상추는 젊은 시절 글공부를 하면서 집안을 빛낼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바람과 달리 펼쳐졌다. 위로 형이 두 명 있었는데, 맏형은 스물네 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둘째형 역시 장가도 들지 못한 채 열일곱에 죽고 말았다. 그래서 노상추는 사실상 장남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야 했고 종가(宗家)도 보존해야 했다. 본인 식구 이외에 27 세에 청상과부가 된 큰형수를 모셔야 했고 어린 조카도 두 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노상추도 조부처럼 “붓을 던져버리고” 무과에 뜻을 품었다. 그 때가 23 세(1768 년)였고 그 꿈을 이룬 해가 35 세였다. 무과에 급제하기까지 무려 12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 그 사이에 노상추가 겪었을 좌절과 실망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노상추는 무과에 뜻을 정한 날부터 바로 활쏘기 연습에 들어갔다. 임금을 모시는 꿈을 꿀 정도로 관직 진출에 대한 염원이 컸다. 그런 그가 연습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심기일전하여 활쏘기를 시작한 때는 1770년 봄이었다. 노상추는 정식으로 신사례(新射禮)를 하고 연습에 들어갔다. 신사례란 일종의 통과의례로서 활쏘기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고기와 술을 마련해 선배들을 대접하는 일이었다. 노상추는 활터에서 이미 무과에 급제한 경험이 있는 해주 정씨 일가들의 도움을 받아 활쏘기를 익혀나갔다.

노상추가 처음 과거를 치른 것은 1771년 2월이었다. 노상추는 정시(庭試) 무과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없었던지 근력만 낭비할 뿐이라면서 포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친구들과 함께 서울행을 감행해 무과에 응시했고 결과는 낙방이었다.

시기	무과종류	결과	자료 : 『노상추일기』
1771년(영조 47) 2월	정시	초시 낙방	1771년 2월 9일
10월	정시	초시낙방	1771년 10월 11일
1776년(영조 52) 3월	정시	시험 실시 안함	1776년 3월 1일
1777년(정조 1) 8월	식년	초시 합격	1777년 8월 2일
9월		복시불합격	1777년 9월 19일
1778년(정조 2) 7월	알성	초시낙방	1778년 7월 14일
8월	정시	초시낙방	1778년 8월 3일
1779년(정조 3) 9월	식년	초시 합격	1779년 9월 22일
1780년(정조 4) 2월		복시 합격	1780년 2월 25일
1780년(정조 4) 3월		전시	1780년 3월 16일/17일

노상추가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응시한 시험은 총 일곱 번이었다. 노상추가 처음 과거를 치른 1771년 2월부터 합격한 해인 1780년 3월 사이에 실시된 무과는 총 29 회였다. 이 중 노상추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식년시·증광시·정시 등 20 회였고, 노상추는 일곱 번의 시험에 도전했다. 이 중 한 번은 서울까지 갔다가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되돌아왔으므로 실제로는 여섯 번이 된다. 노상추는 과거 시험 관련 정보를 주로 함께 활쏘기를 하는 친구들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서울의 친인척 및 주변친지 등을 통해 획득했다.

그러면 노상추가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노상추의 말대로 운수일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1772년 아버지의 죽음도 급제를 지체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지방민들은 정보 획득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다. 예컨대, 1777년에 선배들로부터 식년시에는 『오자(吳子)』가 출제된다는 말을 듣고 준비했다가 막상 서울에 오니 영조(英祖)의 명으로 『오자』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복시가 있기 전날 밤에 『삼략(三略)』을 두 차례나 읽었으나 해당 과목에서 낙제하여 낙방하고 말았다.

둘째, 조선후기 무과 운영이 노상추처럼 지방민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리했다는 점이다. 노상추가 합격한 무과는 1780년에 실시된 식년시였다. 총 225인이 합격했는데 그 중 직부전시(直赴殿試)로 올라온 사람만 197명(87.6%)이었다. 노상추처럼 단계를 밟아 합격한 사람은 28명에 불과했다.

직부전시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군영에 소속된 상태에서 각종 활쏘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다. 또는 내승(內乘), 남행선전관(南行宣傳官), 별군직(別軍職) 등 무반 청요직에 일찌감치 문음(門蔭)으로 진출한 양반가 자손이었다. 노상추의 경우 권력에서 멀어져 있던 탓에 무반 청요직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만큼 급제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4. 무과와 출세의 길

조선시대에 무신으로 나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과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무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식년 무과와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다양한 명칭의 별시 무과가 있었다. 식년시와 별시 합격자는 진급의 차별성은 없었다. 식년 무과의 선발 인원은 28명이며, 별시무과는 28명에서 수 십 명 또는 수 백 명 심지어 1만 명 이상을 선발한 사례도 있다.

둘째, 조상의 공적을 인정하여 그 자손들을 관료로 등용하는 문음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문음을 통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은 청요직이나 고급 관료로 성공하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문음으로 들어온 후 과거시험을 보는 경향이 많았다.

조선전기에 양반을 가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고조(高祖) 대까지 관직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했다. 이 기준은 양반들이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 정치와 지속적인

연결망이 필요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은 가문 내의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양반들이 가장 영예로운 관직 진출 수단으로 여긴 것은 과거시험을 통한 성취였고 무과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향촌일수록 과거 합격은 관직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양반이라 해도 문반과 무반의 위상이 다르듯이 과거시험도 문과와 무과의 위상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소개했듯이 조선후기에 무과급제자의 선발 인원은 대폭 늘어나는 추세였다. 국가에서 무과의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계기는 임진왜란이었다. 전쟁 와중에서 부족한 병력을 무과급제자의 선발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자연스럽게 까다로운 과거 시험의 잣대를 포기해야 하였다.

요컨대, 무과를 관료 선발이 아닌 정예병을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는 시험 방식과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그리고 이 때문에 다양한 신분이 무과에 응시하는 시도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무과 급제자의 양산은 무과급제자의 신분을 하향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하나의 사례로 1676 년(숙종 2) 북벌(北伐)을 위한 군병 확보를 위해 실시한 무과 별시에서는 1 만 7 천 여 명의 무과급제자가 선발되었다. 1 만 7 천여 명의 신분을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으며, 그만큼 무과급제자의 질적 수준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늘날 현전하는 무과방목을 통해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16,575 명의 인적 구성을 분석해 보면 직업 종류만 256 종이나 되어 다양한 신분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무과급제자의 양산은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무과 합격증의 발급이 민심을 붙잡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고 무과급제자의 존재가 세수(稅收) 증가에 큰 도움이 되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문과는 과거시험으로서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데 비해, 무과는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고 그만큼 과거시험으로서의 명성에도 균열을 가져왔다.

선발인원이 많아지고 신분이 하향화되면서 이제는 무과에 급제한다고 하여 누구다 다 관직 진출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곧 무과급제자에게 열린 관직 진출의 현실이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았으며 문지(門地)나 가세(家勢)에 따라 현저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에서 관직 진출이란 문신은 물론 무신까지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출신 성분이나 가문에 따라 향후 진로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18 세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조선후기에는 명문가 후손을 위한 특별한 진로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바로 선천(宣薦)이었다. 선천이란 선전관 천거(宣傳官薦舉)의 약칭으로 무과 급제자나 한량 가운데 장차 선전관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천거해 두는 제도였다. 즉 청요직으로 꼽히는 선전관의 예비후보자를 미리 뽑아놓고, 선전관에 궐원이 생기면 이 가운데에서 적임자를 선발해 임명하였다.

선천은 명문 가문이나 크고 힘 있는 가문의 자손들이 아니면 들기가 쉽지 않았다. 문벌이 뛰어나도 평안도나 함경도 사람이거나 서얼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선발요건이 까다로웠다. 그러므로 선천에 든다는 것은 명문가의 자손으로서 고위직을 맡겨도 아무런 흠이 없는 인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선천은 서반의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관문으로서,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하위직에서 평생을 마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례로 정조에서 고종 연간 사이에 군영대장을 거친 108 명을 조사한 결과 무과 출신이 72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0 명(86%)이 선천을 거쳤다.

그러면 선천에 들지 못한 무과급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가장 일반적인 진로가 각 군문(軍門)에 소속되어 승진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무과 급제자를 수용할 관직이 부족하자 이들을 군문에 배속시켜 군대의 질을 높이는 한편, 근무 일수나 각종 시재(試才) 등을 이용해 벼슬길을 열어주었다. 이 점 때문에 무과 급제자들은 군문 배속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양반에게는 그 기회가 더 빨리 찾아왔다. 승진이 더디기는 했으나 근무 일수나 각종 시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체아직이나 하급 관직으로 나가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양반이라 해도 아픔이 없지 않았다. 경상도 선산 출신인 노상추(盧尙樞)는 1780 년 35 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해 1793 년 삭주부사로 나가기 전까지 13 년 동안 선천을 거쳐 금군·무신겸선전관·훈련원주부·오위장(五衛將) 등을 지냈다. 얼핏 순탄해 보이는 이력이지만, 선산에서 명문가에 속하는 노상추로서는 참기 힘든 나날이었다. 노상추가 무과 급제 뒤 오매불망 고대하던 관직은 수령이었다. 노상추는 인사이동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병조판서나 오군영 대장을 비롯해 고위 문신 인사들도 찾아 다녔다. 그러나 “소위 공명(功名)이라는 것이 진실로 가소롭다”고 한탄할 만큼 13 년 동안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노상추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사람은 정조였다. 1792 년 정조는 하급 무신들의 활쏘기 시험 성적을 열람하다가 노상추라는 이름을 보자 무신란(武臣亂)에서 전공을 세워 영조에게 발탁된 노계정을 기억해냈다. 노계정은 노상추의 조부였다. 이 일을 계기로 노상추는 당상(堂上)

선전관을 거쳐 이듬해 삭주부사로 발령을 받았다. 정조의 표현대로 천운이라 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노상주는 더 이상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양반도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인의 경우에는 무과에 급제했더라도 관직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신분이 낮다보니 조상의 후광이 있을 리 없었고, 본인을 밀어줄 후원세력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무과 홍패만 자손 대대로 기념으로 물려줄 뿐이었다. 그나마 운 좋게 승진의 기회를 잡더라도 거기까지일 뿐 더 이상의 승진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후기 읍지에서 성명만 기록된 채 이력이 없는 무과 급제자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황해도 개성에 거주한 선무군관 최필주(崔弼周)는 1790년(정조 14) 증광무과에 37세의 나이로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양인(良人) 최천만이였다. {중경지}(中京誌)무과조에서 최필주를 조사하니 이름만 올라 있었다. 최필주가 아무런 이력 없이 무과조에 올랐다는 사실은 관직 진출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인이라는 점에서 양인가 출신의 관직 진출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무과가 양반의 출세에 끼친 영향

이 글은 무과에 대한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과거시험의 개방성은 과거합격률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과거시험의 본래 기능인 관료로서 기능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급제 여부나 다과가 과거시험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라 과거 급제 후에 과거합격자인 홍패가 현실에서 실제로 힘을 가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위의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과를 둘러싼 변칙의 현상보다는 ‘正科’로서의 위상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곧 무과시험의 원래 목적으로 되돌아가 무과가 갖는 관료 선발 기능을 재고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은 무과에 대한 오래된 통념을 바로잡고 조선사회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무과의 급제나 무과 급제 후 관직 진출이 개인의 역량으로만 좌우된 것이 아니라 무과급제나 관직 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무과시험이 겉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直赴殿試나 宣薦처럼 사족을 위한 특별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이 점은 사족과 非사족 사이에 존재하던 간극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무과에서도 여전히 사족이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글은 과거시험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인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놓고 무과 급제를 통해 누구나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 가능했는지를 검토한 글이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이자 특권 사회였다. 양반들은 스스로 그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고안하였다. 중앙의 무신 가계는 문신 가계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특권을 재생산하고 보존하기 위해 후손들이 무신 관료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였다. 중앙의 무신 가계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조상의 후광을 받아 무과 시험을 보지 않은 채로 선전관이나 별군직(別軍職) 등 청요직(淸要職)에 발탁되었다. 이들은 근무 중에 각종 특혜를 받아 무과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고 합격 이후 승진을 보장받아 고위 무신 관료로 승진하였다.

이 발표에서 주목한 것은 개인의 관료에 영향을 끼친 유형 또는 무형의 그 어떤 사회구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에게는 특혜가 되고 누구에게는 장애가 되는 '제도'였다. 군문 출신이나 외방 무사들은 과거 급제로 큰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군문에 소속된 무과급제자들은 급료 자리를 제공받았으나 윤번으로 급료를 받는 자리였다. 더구나 지방 출신은 이것조차 여의치 않았으며 서북지역 무과급제자의 사례처럼 무과에 급제한 후 어떤 관직에도 나가지 못한 채 그저 무과출신으로 지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사족의 무과급제자는 무과 급제 후 다른 무과급제자에 비해 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이 주어졌다. 무엇보다도 사족의 무과급제자를 위한 특별한 배려는 선천(宣薦)이었다. 집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천을 통해 사족들은 다른 무과급제자에 비해 관료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선천을 발판으로 성공적으로 관직에 진출해 경력을 쌓아 갔다.

특히 직부전시를 획득해 무과에 급제한 선전관 및 前선전관의 진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무과 운영의 한 측면으로서 무과 급제 및 관직 임명에서 사족을 선호하고 우대한 정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말할 것도 없이 非사족의 무과급제자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혜택이었다. 불공평하게도 관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좋은 집안을 가진 사족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갔고 선조나 집안의 후광을 입어 대장이나 수령 등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요컨대, 사족의 무과급제자들이 宣薦을 이용해 관료를 선점하는 현실은 무과급제자에게 놓인 차별의 장벽을 잘 보여준다. 누구나 무과 급제를 통해 사회적 지위의 획득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전제되어야 했다. 곧 집안 좋은 사족이거나 고위 무반 가계라면 유리한 승진이나 고위직 진출의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집권 당파의 무과급제자로서 정치적으로 利害를 함께 한다면 더 유리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조선후기 무과에 대한 이해에는 무과급제자의 진로를 함께 고려할 때에 무과 급제의 의미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사회에서 과거 합격과 관직 진출은 별개였다. 비엘리트들이 어렵게 무과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관리로 등용되는 과정에서 도태되었고 하급직에 머물렀다. 이들이 관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과합격증의 가치 저하라기보다는 정교하게 운영되는 차별화된 관료시스템 때문이었다. 이 점은 문과급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양반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관료 시스템을 도외시한 채 무과에 합격한 비엘리트의 좌절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Edward W. Wagner 교수가 *The Ladder of Success in Yi Dynasty Korea*(1974)에서 조선 정치의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직을 수여할 때 실제로 행하진 차별 대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홍두, 1996, 「武科를 통해 본 朝鮮後期 賤人의 身分變動」, 『民族文化』 19, 民族文化推進黨.
- 박영진, 2001, 「조선초기 무과출신의 사회적 지위 - 태종·성종년간의 급제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 송준호, 1977, 「李朝後期の武科の運營實態について」, 『韓 6-10』, 韓國研究院.
- 심승구, 1994,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승구, 2002, 「조선후기 무과의 운영실태와 기능 - 萬科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23, 조선시대사학회
- 정해은, 1994, 「朝鮮後期 武科入格者의 身分과 社會的 地位; 肅宗~正祖年間の 무과방목의 분석을 중심으로」, 『淸溪史學』 11, 淸溪史學會.
- 정해은, 1998, 「武譜를 통해서 본 19세기 무과 급제자의 관직 진출 양상」,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朝鮮社會研究會.
- 정해은, 1999, 「丙子胡亂期 軍功 免賤人의 무과 급제와 신분 변화 - 丑庭試文武科榜目(1637년)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9.
- 정해은, 2002, 「조선시대 武科榜目の 현황과 사료적 특성」, 『軍史』 47, 國防部 軍事編纂研究所.
- 정해은, 2002, 『朝鮮後期 武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 정해은, 2007, 「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士族의 勸武」, 『朝鮮時代史學報』 42.
- 정해은, 2008, 「조선 후기 무신의 중앙 관료생활 연구 -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3, 한국사연구회.